

2 0 2 0
**한국외교
10대과제**
복 합 과 공 진

하영선 편

Toward 2020

Ten Agendas for South Korea's Foreign Policy

Edited by Young-Sun Ha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 국가안보패널의 다섯 번째 공동연구 보고서를 내놓는다.

2011년 3월 열다섯 명의 공동연구자들은 EAI 회의실에 모여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한 월례연구를 시작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우선 2012년 대통령선거 때문이었다. 대선의 계절만 찾아오면 외교, 안보, 통일 과제를 풀기 위한 후보들의 캠프가 쳐지고 당파적 시각에서 단기 백병전이 벌어져 왔다. 그 결과로 초당적 시각에서 제대로 검토해서 지속할 것은 지속하고 바꿀 것은 바꾸지 못한 채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란의 그네뛰기를 계속해 왔다.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2013년 새 정부가 당면할 동아시아질서의 새 판을 초당적 시각에서 제대로 읽고 활로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다음으로 동아시아질서의 새 판짜기 때문이었다. EAI 국가안보패널은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동아시아질서를 냉전과 탈냉전의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서서 복합적 시각에서 새롭게 읽어야 한다는 외로운 주장을 계속해 왔다. 2012년의 동아시아질서는 주인공, 무대, 연기의 모든 면에서 복합적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연구모임은 한반도가 직면한 새 판짜기의 복합적 내용을 크게 지구통치(global governance), 안보, 경제, 환경의 넷으로 묶은 다음에 다시 세분화해서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복합과 공진이라는 새로운 활로 찾기 때문이었다. 기성초강대국 미국과 신흥대국 중국이 새롭게 엮어내는 미중 시대의 한반도 생존변영전략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있는 북한 문제를 소박한 유화론과 강경론을 넘어선 제3의 공진(coevolution)론에서 새롭게 검토했다. 그리고 중진국 한국으로서 다양한 지구통치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공동연구자들이 완성한 개별 원고를 기반으로 연구패널은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 정책제안>을 마련하여 2012년 12월 초 대선주자들의 외교안보 정책마련에 기여하고 있는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초청해서 여당과 야당 그리고 EAI의 정책제안들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현재의 이분법적 대결 구도를 극복하고 보다 복합적 협력 구도를 마련해 보려는 것이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시한부의 대선 캠프를 넘어서서 새로운 한국형 집단지성의 가능성을 열어 보려는 노력이었다.

공동 연구자들은 2년 가까운 세월동안 매달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점심까지 진행되는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진행하고 까다로운 집필 절차에 따라서 원고를 마무리해왔다. 고마울 뿐이다. 그리고 수집된 원고가 한편의 책이 되기까지 동아시아연구원 김양규 연구원의 헌신적 뒷받침이 있었다. 감사하다.

2012년 12월
晚靑 河英善